

호스피스

-지상강의-

죽음에 직면했을 때 발견하게 되는 신앙

FR. T. O'Connor, chaplain St. Joseph's Hospice, London

신앙의 행위는 그 사람의 가장 심층부에서 일어난다. 자신의 처지나 기쁨, 공포, 불확실성이 사람들을 더 진실되고 더 인격적인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준다.

일반적으로 질병과 위기를 더 깊은 신앙체험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교인들의 문화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이 금방 닥칠 것이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는 질병은 그 자체로 이 모든 것에 공헌하는 것이다. 실제로 교차로 서있는 사람은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더 분명히 인식할 수 있다. 그 사람은 처음으로 하느님의 존재를 발견할 기회를 가질 수도 있고 혹은 이미 갖고 있던 하느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체험하고 인격적인 것으로 만들 수도 있다.

말기 환자들의 모든 관심은 하느님께 집중된다. 사제에게는 이때가 불충분하게 믿고있거나, 미신에 빠져있는 환자를 도와서 보다 명료하게 하느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환자에게는 하느님에 대한 지금까지의 체험이 좋은것이든 나쁜것이든 간에 생생하게 재경험되는 순간이다. 환자는 앞으로 시간이 별로 남아 있지 않다는 긴박감에 화나 죄책감, 희생당했다는 생각과 무력감들이 혼합된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이 때 원목 사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따뜻하게 돌보아 주시는 하느님의 이미지로 환자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와 함께 동반해 준다.

반면 환자는 이런 방식의 호스피스 돌봄 정신에 감사하게 되며 인격적인 하느님의 이미지를 생생하게 느끼게 되고 실제로 그 신비를 마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할때 호스피스 환자는 자신을 보살펴주시는 하느님께 속해 있다는 느낌과 또 하느님과 활기찬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는 느낌에 도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우리 생활 속에서 하느님의 방법과 하느님에 대한 지식이 더 증가된다는 뜻은 아니다. 그 보다는 '지식'은 전체 호스피스팀이 보여주는 보살피 주는 분위기를 경험하였던 증인들로부터 온다. 인격적인 하느님을 발견한데 대한 감사로서 신앙은 마음속에 빛을 주고 또 말기환자에게는 평화와 내적인 평온함을 제공한다. 이 빛과 평화는 당신의 수난과 죽음을 분명하게 의식하면서 그 길을 가셨던 예수님을 통하여 오는 것이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말기환자는 우리에게 가장 인상깊은 방법으로 가르침을 주는 우리의 스승이다. 사제는 하느님과의 관계인 자신의 신앙을 인격화함으로써 환자를 진심으로 교화시킬 수 있다. 이런 성숙은 기도가 중심이 된 삶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것이다. 이것은 무력감에서 생기는 열매나 되는대로 함부로 살아가는 태도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느님과의 건강한 관계안에서 무력감 자체를 관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으로 하느님은 하느님이요 인간은 인간으로 남아있는 그런 관계인 것이다. 이것은 올바른 조화이다. "너는 이미 내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 내 권능은 약한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고린도 후서 12:9)

한국 가톨릭 호스피스 협회